



현대차 정몽구재단, 韓·日 재단 교류행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15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한·일 재단 교류 행사인 '코리아-재팬 파운데이션 익스체인지 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양국의 민간 공익재단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각국 주요 재단의 공익 활동 사례와 운영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서 이번 교류 행사를 기획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청호나이스, 서울시 어린이병원 벽화 그리기 봉사

청호나이스는 사내 봉사활동 모임인 '작은사랑실천운동본부'가 서초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벽화 그리기 봉사를 통해 따뜻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청호나이스 임직원 약 20여명이 참여해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청호나이스



GC녹십자, '소리드림' 통해 독서 취약계층 도와

GC녹십자가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 '소리드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리드림'은 다문화 가정, 시각장애 아동 등에게 동화책 낭독 목소리 녹음본과 동화책을 기부함으로써 독서 취약 계층의 문화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활동에는 GC, GC녹십자, GC셀 계열사 직원 등 30명이 참여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했다. /GC녹십자



세븐일레븐, 내일부터 '거창군 양파'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경상남도 거창군과 협력해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18일부터 거창군 양파 본격 판매에 나선다. 이번 양파 판매는 전국적으로 양파 출하량이 늘면서 적정 수취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세븐일레븐



신한은행-대한치과기공사協, 협회원 맞춤상품 제공

신한은행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협회원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원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협회 및 은행의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추진 등을 추진한다. 김재민 신한은행 영업추진그룹장(오른쪽)과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LG전자 앰버서더, 콘텐츠 조회수 2500만회 돌파

‘2025 앰버서더 어워즈’ SNS 팔로워 수 460만명 돌파 “고객주도 플랫폼으로 팬덤 확대”

LG전자가 고객 주도형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팬덤 강화에 나서고 있다. LG전자 앰버서더 1·2기 활동 콘텐츠는 누적 1800건, 순조회수 2500만회를 넘겼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2025 앰버서더 어워즈’를 열고 2기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메타 협업 마케터 강연, 인기 크리에이터 토크쇼, 네트워킹 파티 등도 함께 진행됐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2025 앰버서더 어워즈’를 열고 2기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위 사진은 앰버서더 1·2기 크리에이터 파티 현장 사진. /LG전자

앰버서더는 LG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식 크리에이

터 그룹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20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의 SNS 팔로워 수는 460만명을 넘는다.

이날 어워즈에서는 우수 활동자 14명이 선정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로 팔로워 수를 5만 7000명가량 늘린 ‘판타소녀’가 최대 성장상을, 총 256만 조회수를 기록한 ‘썰의신’이 최다 조회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각 500만 포인트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콘텐츠 퀄리티상, Better Life상 등도 함께 시상됐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객 주도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팬덤을 자연스럽게 확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벤처기업 지원 나서

‘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협약식 폐플라스틱 재생 관련 기업 발굴

롯데케미칼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오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 ‘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프 소셜은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프’ 캠페인의 일환이다. 폐플라스틱 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자원 선순환 프로세스를 확장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0년 소셜벤처 기업 8개사와 함께 프로젝트 루프 소셜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3기 정식 사업 포함 총 19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번 4기 모집에서 롯데케미칼은 프로젝트 루프 주관 기업인 임팩트스퀘어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 플라스틱 자원의 수거, 선별, 원료화를 추

진하는 유망 소셜벤처 기업 6개사를 선정했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 실현금 지원,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판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발된 6개사는 AI 로봇 솔루션 기반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별 기업 ‘에이트테크’, 재활용 플라스틱 전문 유통 플랫폼 ‘파운드오브제’, 미생물 기반 플라스틱 분해 기술 보유기업 ‘리플라’,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포어시스’, 고분자 표적 추출 방식 섬유 재활용 기업 ‘텍스타일리’, 연속 초음파 열분해 활용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기업 ‘아크론에코’이다.

롯데케미칼 이영준 총괄대표는 “프로젝트 루프 소셜 활동을 통해 소셜벤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 선순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스타벅스, 커피 서비스 전문가 양성

‘커피 엑셀런스 센터’ 출범

개업 26주년을 맞은 스타벅스가 국내 처음으로 커피 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조직을 출범하며 본업 강화에 나선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브랜드의 핵심이자 본질인 커피 경험 강화와 고객 고감각 실현을 위해 ‘커피 엑셀런스 센터(Coffee Excellence Center, CEC)’를 새롭게 출범하고, 커피 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통한 고객 경험 극대화에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사내 자격증이자 커피 지식 및 교육 프로그램인 커피메스터 제도와 함께 매년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대표하는 1인의 커피앰배서더를 선발해 대외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벅스의 커피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한 커피메스터는 약 1만 7000여명에 이르며, 전국 매장에서 고객과 소통하며 스타벅스의 커피 경험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 엑셀런스 코치와 파트너가 커피 제조 과정을 실습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 엑셀런스 센터’는 이러한 스타벅스의 커피 및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헤리티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파트너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커피와 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매장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파트너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커피 엑셀런스 센터’는 커피메스터 자격을 보유한 파트너 중 커피와 서비스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24명의 최정예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차그룹, 공항서 전동화 휠체어 대여

무상대여로 교통약자 지원

현대차그룹은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현대차그룹 이항수 부사장,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이재강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동화 휠체어 대여소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 사업 ‘휠세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전동화 키트를 무상 대여하는 서비스로, 키트가 장착된 전동화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에 비해 끄는 힘이 적게 들면서도 전동 휠체어보다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휠세어 인천국제공항 대여소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7, 8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조이스틱형 ▲보호자 조작형 ▲꼬리형 등 총 30대의 휠체어 전동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왼쪽부터), 현대차그룹 이항수 부사장,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이재강 회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전동화 휠체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차그룹

키트와 ▲경량 전동휠 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전동화 키트와 경량 전동 휠체어 가운데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해 1회 최대 1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대여한 장비는 해외로도 반출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사립대의료원協 회장에 유경하 의료원장

(이화의료원)

협회, 임시총회 열고 연임 결정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은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사진)이 ‘제16대 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지난 14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2025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현 회장인 유 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유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쳐 일찍이 2020년 2월부터 이화의료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유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종양 및 혈액종양 분야에서 다양한 학술활동도 지속해왔다. 국내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인사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양산금융센터 정현석 △영양추진부 이주현 △해양금융부 조주한 ◇부실점장 전보 △IT기획부 김종철 △IT품질관리부 김성희

부음

▲최광식(향년 84세)씨 별세, 최지우(법무법인 자유 변호사)씨 부친상=15일 오전 5시 25분, 충북 제천 제일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영원한침터. 043-645-4114